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달리고 달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趙大濟  
발행처: 경남중고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 ~ 3, FAX: 245-7550  
홈페이지: www.kyungnam.or.kr  
인쇄처: 동방인쇄  
在京同窓會=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30 동북빌딩 504호  
Tel: (02)783-0071 ~ 2, FAX: (02)783-0073

# ‘모교60년사’ 편찬 추진 기별납시 4월 22일 개최

## 본부 38차 정기총회...용마대상 김형석 (16회) 수상

본부동창회는 숙원의 ‘모교60년사’를 편찬기로 하고 사업계획안 준비에 들어갔다.  
또 가족동반 야유회를 겸한 기별대향납시대회를 올 4월 22일 개최기로 했다.

특히 김영삼 전대통령(3회)의 축하 화환과 격려메시지를 비롯, 각계 동문들의 축전이 쇄도했다.  
이날 동창회 최고상인 제9회 용마대상은 본부총무 재직시 조직기반을 공고히 했고, 현재 동창회

보의 편집을 총괄하고 있는 김형석동문(16회·부산언론인클럽 기획사무처장)이 수상했다.  
또 동기회 부산·서울 홈커밍 행사를 잘 치러낸 노수덕 신준호(이상 14회)·서정대 정영덕(이

### 김영삼 前대통령 축전 김수현 초대 경총회장 흠커밍 유공 등 7명 공로패

조대제본부회장(7회·협성개발 대표이사)은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열린 본부동창회 제38차 정기총회를 주재, 인사말을 통해 “모교와 용마가족의 역사·전통을 조명하는 ‘모교 60년사’를 발간하기 위해 편찬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안을 준비하겠으며, 한동안 열지 못했던 기별대향납시대회를 부활, 오는 4월 22일 개최기로 했다”며 올해 역점사업을 밝혔다.  
35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최득호 사무국장(11회)의 사회로 열린 총회는 본부고문(김근준 송두호 정소영), 재경고문(김경희), 본부회장단(조대제회장 박동열 정행권 한병조 심두수 박재상 등), 감사(방봉우) 등 소개, 제9회 용마대상 및 공로패 수여, 회장인사 격려사(송두호본부고문·3회) 축사(김경희재경고문·9회), 의안심의, 축배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 제2기 용마장학회 출범

본부동창회의 용마장학회 제2기 집행부가 지난 1월 30일 올해 제1차 이사회를 개최, 공식 출범했다.  
조대제 장학회이사장(7회·본부회장·협성개발 대표이사)은 이날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대어초밥’에서 열린 이사회를 주재, 박종구동문 등 11명의

이사와 김근준동문 등 2명의 감사에게 각각 선임장을 주고 제2기 집행부의 출범을 선언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했다.  
■ 이사 ▷박종구(5회·삼구 회장) ▷김삼현(7회·한의원장) ▷박동열(8회·해운대 성심병원장)

상 24회)·황병주 박정상동문(이상 34회)이 각각 공로패를, 총무협의회를 활성화시킨 김수현(5회) 초대 경총회장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총회는 주요의안 심의를 통해 본부운영 등에 대한 결산(감사보고 : 강진평 수석감사·10회)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2부 단합회는 김근준고문(1회)의 선창에 따른 축배와 고문 회장단 등 축하케이크 자르기, 만찬으로 이어져 정담이 넘쳤다.  
한편 단합회에 앞서 대구지역 조규중회장(15회·치과의원장)·주기민 경남중 교장(16회)·박성표 부산국토관리청장(24회)·이상민 재경동창회 총무(36회) 등이 소개패, 격려박수를 받았다.  
▽지난 3월 14일 저녁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열린 본부동창회 제38차 정기총회. 조대제회장이 유공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용마대상 김형석동문 공적  
본부동창회 용마대상심사위원회(위원장 조대제회장·7회)는 지난 2월 7일 오후 5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대어초밥’에서 제9회 용마대상 후보자 심사위원회를 개최, 수상자로 김형석동문(16회·부산언론인클럽 기획사무처장·앞 왼쪽)을 선정했다.  
이날 심사위원으로는 조위원장(위원장)을 비롯, 박동열(8회·해운대성심병원장) 정행권(9회·협성운수 대표이사) 오강욱(10회·남선곡산 대표이사) 안강태(11회·대선조선 대표이사) 한병조부회장(13회·부일법무사회 대표)과 최득호본부사무국장(11회) 등이 참석했다.

### ‘용마의 밤’ 등 도입 조직 전국최고화 동창회보 편집총괄 일체감 조성 기여

제9회 용마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동문의 공적서에 따르면, 김동문은 지난 81년 6월부터 94년 5월까지 본부 총무직을 맡아 뉴프런티어정신을 발휘, ‘용마의 밤’·‘용마대동제’·‘용마테니스대회’ 등을 도입했고 기별야구대회 등 각종 행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열악한 조직을 전국 최고의 공동운명체로 구축하는 데 헌신했다.  
특히 김동문은 총무직 수행 이래 현재까지 본부동창회 대변자인 ‘경남중고동창회보’ 편집이사를 맡아 제작을 총괄, 각 동기회·국내외지역회·직능회 등의 역량결집과 용마가족의 일체감 조성,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선양 및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집익스

ZIM EXPRESS

집익스가 전국지사, 영업소, 개인화물운송사업 창업을 원하는 실력자에게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전국 신개념 소화물 운송사업 시장 개척에 집익스가 먼저 나아갑니다.
- 전국 신개념 물류사업 추진 희망자와 집익스가 하나로 뭉치면 한국의 신개념 소화물 운송사업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장애인과 보호자 우선대상

대표이사 이병훈(14회)

개인화물 운송사업으로 “집”과 “집주인”을 함께 모시는 신개념·선진국형 물류운송사업!!

언제 어디서나  
**1588-1080**

**ZIM EXPRESS**

소화물 서비스의 개념을 바꾼다! 완벽주의 - 집익스

고객을 위하여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주) 서진익스프레스  
SIR GIN EXPRESS CORPORATION

051-644-1717 (대)

후원 사단법인 국제장애인협회  
국제장애인정보화자료포럼



# 재경 2001신년회 성황

## 공상기(11회) 등 12명에 '자랑스런 용마상'

재경동창회 '2001신년회'가 지난 1월 17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이규만회장(12회·KML 대표이사)의 주재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동식 재경명예회장(1회) 김영삼 전 대통령(3회·본부 고문) 조대제 본부회장(7회·협성개발 대표이사)을 비롯한 제1~49회 동문 160여명이 참석했다(사회 박양조사무국장·19회).

이규만 재경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재경동창회의 홈페이지인 Knsa의 완벽한 구축과 튼튼한 재정확보, 화합을 위한 다양한 모임을 활성화하는 데 심혈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재경회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격려사와 조대제 본부회장의 축사에 이어 유공동문 표창을 통해 김승규 직전회장(11회)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 '2000 자랑스런 용마상' 시상

을 통해 공상기(11회·세종병원장) 정철기(13회·국회의원) 김충식(15회·방립 대표이사) 조상호(15회·대한병리학회) 김연일(17회·순천향대학병원장) 민태정(17회·국립지리원장) 남궁성은(17회·강남성모병원장) 고병현(18회·금비 회장) 이상철(18회·주이란대사) 박재우(19회·

조양상선 부회장) 김효근(24회·육군준장) 엄호성동문(28회·국회의원) 등 12명의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신년회는 이어 김경희 재경고문(9회·용마공영 대표이사)의 지휘에 따른 교가제창과 전남 장흥에서 새벽에 올라온 최형식동문(2회)의 선창에 따른 만세삼창, 축배-만찬-정담-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돼 뜨거운 우정이 가득했다.



△지난 1월 17일 저녁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경동창회 '2001신년회'. 이규만재경회장(12회)의 인사말을 조대제 본부회장(아래 오른쪽서 다섯번째)등 많은 동문들이 경청하고 있다.

## 이규만(12회) 재경동창회장 취임사



## 뜨거운 참여 지속화로 연대감 확산

지난 20세기는 그야말로 격동과 변혁의 한 세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20세기의 그 역사의 한 장을 접고, 새로 시작되는 새 질서와 변화의 물결 위에 선 21세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럴 때, 자랑스러운 용마인 우리 각자는 더욱 더 개개인의 알차고 보람있는 일들을 위하여 가야 한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본인은 21세기 첫 해의 재경동창회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이어가는 데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동창회는 그야말로 친목단체이면서도 경교라는 유대관계로 뭉쳐있는 한 가족입니다.

그동안 전임 여러 회장님들께서 다들 수고하셨고 많은 일들을 우리 동창회를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일궈왔습니다. 한 사람이 한 입기에 많은 일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씩이라도 착실히 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많은 후배들이 10년, 20년, 50년, 아니 100년이 되면 수백 가지 일들을 일궈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동창회는 회장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동기회별로 회장, 총무가 있고 또 이 회장, 총무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 동문 개개인이 동창회에 대한 참여 의식과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연대감을 가져야 우리 동창회가 명실상부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음으로 새 시대를 다같이 우리 우렁찬 함성으로 맞이 하시길 빌며 모든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길 빌어 감사합니다.

## 신용태(13회) 중앙대 예술대학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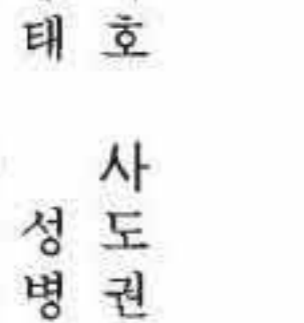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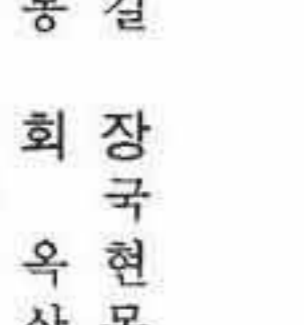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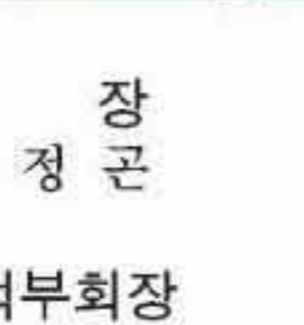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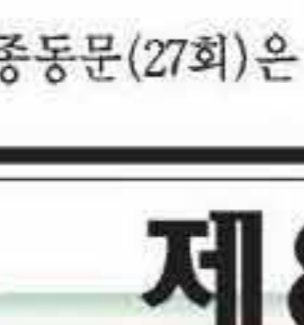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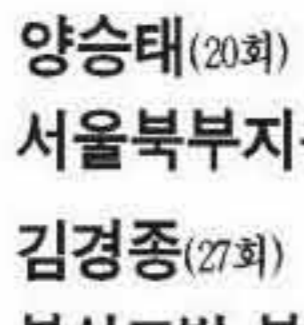


신용태동문(13회·사진)은 최근 중앙대 예술대학원장으로 취임했다. 서울대 미술대와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을 졸업한 신동문은 지난 73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 예술대 공예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첨단영상학과 등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신동문은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대통령상 수상·한국시각디자인협회 부회장·산자부 산하 평가원 디자인센터 설립 및 연구원 등을 지냈다.

## 김선양(38회)·서정호(42회) 송재섭(48회) 사법고시 합격

김선양(38회·서울대 인문대졸) 서정호(42회·서울대 경영대졸) 송재섭동문(48회·서울대 법대졸)이 제42회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에서 수학 중이다.

## 박영무(15회) 대전고법원장 영진



## 양승태(20회) 서울북부지원장 발탁

## 김경종(27회) 부산고법 부장판사 취임

최근 단행된 사법부와 행정부, 언론계 등의 인사에서 여러 동문들이 영진했고 3명의 동문이 사법고시(42회)에 합격해 경사가 겹쳤다.

사법부에서는 박영무동문(15회·사진 위)이 서울지법원장 재임 중 대전고법원장으로, 양승태동문(20회·가운데)은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으로, 김경종동문(27회)은 부산고법 부장판

사로 각각 영진, 취임했다. 박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시(8회)에 합격, 법원행정기조실장·창원지법원장·행정법원장·서울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양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시(12회)에 합격, 서울민사

## 이상철(18회) 주이란대사

## 남인희(26회) 원주국토관리청장

## 이승무(26회)·엄상현(29회) 교육부 공보관·학술과장

행정부에서는 이상철동문(18회·사진)이 주이란대사로 발탁됐다. 이 동문은 서울대 외교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 외교고시(9회)에 합격한 이래 외교관의 길을 닦았으며 영국 케임브리지대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약했다.

주영국 및 러시아 참사관·대통령비서실 국제안보비서관·외교

후 사시(8회)에 합격, 법원행정기조실장·창원지법원장·행정법원장·서울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양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시(12회)에 합격, 서울민사

통상부 구주국장 등을 역임했다. 또 남인희동문(26회)은 원주 국토관리청장으로, 이승무(26회)·엄상현동문(29회)은 각각 교육인적자원부 공보관과 학술학사 지원과장으로 발탁됐다.

## 이금희(18회) 구본홍(20회) MBC전무·이사 승진

## 김수인(27회) 스포츠조선 홍보부장

언론계에서는 이금희동문(18회·사진 위)과 구본홍동문(20회·사진 아래)이 각각 MBC 전무이사 및 경영본부장으로 영진했다. 또 김수인동문(27회)은 스포츠조선 홍보심의부장으로 전보됐다. 이동문은 서울대 국문과 졸업

지법 부석부장판사(파산1부) 등을 역임했다.

김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시(19회)에 합격,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남동문은 서울대와 경희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 건설교통부 교통시설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동문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국장, 엄동문은 장관비서관 등을 지냈다.

후 MBC에 입사, 이사·MBC프로덕션 사장 등을 거쳤다. 구동문은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한 후 MBC

에 입사, 보도국장 등과 관훈클럽 47대 총무 등을 역임했다. 김

동문은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한 후 조선일보에 입사, 스포츠조선 야구부장 등을 지냈다.

## 제8회동기회 임원·이사 명단

본부동창회 부회장  
박동열  
문국

회장  
김정곤

총무  
도은영

김재범  
김종운

신경화  
심재두

이호원  
임금식

재경동기회 회장  
전영배

본부동창회 이사  
이윤조  
장혁표

수석부회장  
김봉길

재무  
정인호

김택규  
목용성

심재홍  
안중렬

임을수  
장길영

재경동기회 산우회 회장  
김영철

고문  
공상태  
노선태

부회장  
박옥현  
이상목  
이태호

이사  
구본섭  
김문각  
김상곤

박세창  
배기현  
배덕수

우동천  
이성호  
이상식

정금출  
정은근  
조봉석

재경동기회 잔디회 회장  
이창근

박동열  
이윤조  
이춘기  
장혁표

감사  
강성도  
안병권

김상식  
김시경  
김을환(영도)  
김을환(감만)

상기중  
서석동  
서진근  
성해원

이창우  
이춘기  
이회욱  
이호수

최경태  
최낙병  
최윤식

재경동기회 팔선회 회장  
이유환



김선동 (10회)
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



김선동동문(10회)은 최근 부산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에 선임됐다.

이 협의회는 주민들이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 올바른 자녀교육관을 정립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평생교육기관이다.

김동문은 경북사대를 나와 부산 시교육청 장학관·동평중 교장·내성고 교감·남부교육청 교육장·경문회(모교 출신 교직원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유흥수 (11회)
부경대서 명예박사 학위



유흥수동문(11회·국회의원·사진)은 지난 2월 23일 오전 부경대에서 명예박사학위(국제지역학)를 받았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동문은 행정고시(14회)에 합격, 경찰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4선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영두 (19회)
동주대학 기획사무처장



이영두동문(19회·사진)은 동주대 교수겸 기획사무처장으로 활약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술관 경영전문서적인 '미술관 경영'과 문화사업분야의 지침서가 되는 '문화사업 경영전략' 등 예술경영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경영학박사인 이동문은 현대그룹 회장실·대림그룹 기획조정실 임원·대림문화재단 사무국장·한림미술관장·중앙대 예술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제40회 회장 예진원



제40회는 2월 7일 정기총회를 열고 예진원동문(갑진산업 대표)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원철회장 주재의 총회는 23명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제7회재경동기회는 지난 2월 6일 오후 7시 서울 을지로 6가 스칸디나비아클럽에서 동문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개최했다.

배중현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모처럼 참석한 동문이 자기소개를 해 웃음이 이어졌다. 이날 모임에는 오랜만에 박영식 배병우 김종구 김진호 윤용우 정의석 장 열동문과 우리가 늘 자랑해 왔던 이집트 스웨덴 스위스 등지의 해외 공관장을 역임한 박동순 이창범 김해선동문

'홈커밍' 알뜰 준비
재경7회 신년회

등도 참석해 보람이 컸다. 이날 동문들은 한결같이 그동안 참석치 못했던 아쉬움을 실토했고 앞으로는 열심히 참석해 동기회를 돕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박영식동문(광운대 총장)이 구영록동문

에 이어 학술원 회원에 선임된 것을 축하해 분위기가 절정을 이뤘다.

신년회는 이어 2003년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부산의 본부동기회와 협의,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특찬금으로 배중현(회장) 이민희 각 50만원·이종욱(부회장) 20만원·최인호(부회장) 조덕찬(감사) 유상남(고문) 김요환 윤용우 윤용주 오양환동문이 각각 10만원을 협찬했다.

제8회 정기총회
박동열 직전회장 등
공로행운열쇠 수여

제8회동기회(경팔회)는 지난 1월 11일 오후 6시30분 부산역 앞 광장호텔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곤회장 주재로 2001년 정기총회를 개최, 문 국 이상 목동문을 부회장으로 선임, 임원진을 보강했다.

이날 동기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박동열 직전회장과 조봉석총무가 각각 공로행운열쇠를 받았다.

"우리 모임에 오면 재미가 솔솔"
경열회 5개클럽 '신바람'

'재미가 솔솔'한 지역의 경열회(제10회재경동기회·회장 서진홍)가 등산모임인 사니조아 등 5개 친목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결집력 창출에 나섰다.

경열회의 '2001학년도 3월 학급 수업시간표'에 따르면 강북화요회는 6일 낮 12시 중앙극장 건너편 '평래옥'에서, 안산화요회는 13일 낮 12시 안산중앙역 근처 '다리목추어탕'에서 각각 모여 오찬을 나누며 결속력을 위한 여러 묘안을 내놓았다.

또 사니조아회는 18일 오전 1시 서울대 정문 앞에서 모여 관악산으로 오른 뒤 삼막사를 거쳐 안양으로 내려오는 등산

을 실시해 노익장을 과시했다.

여의도화요회는 20일 낮 12시 여의도 '옛골'에서 만났고, 강남화요회는 27일 낮 12시 동기회사무실에서 모인다. 그리고 골프모임인 경록회는 22일 낮 12시 자유 C.C에서 울들어 첫 티업을 했다. 이날 김상태회장은 룽게스트와 리어리스트를 각 2명 선발, '큰상품'을 수여했다.

특히 경열이사회가 2월 15일 열려 고석명동문 등 22명이 참석해 올해 운영방향을 재확인했고, 본당의 새보리회가 10일 부부동반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금정산서 호연지기 펴

제15회 일오산우회

제15회동기회 일오산우회 제181차 산행대회가 지난 1월 21일 부산 금정산에서 동문 14명과 부인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중호산우회장이 리드한 이날 산행은 정창환 동기회장의 양주

(바렌타인 17년산)와 유경수 박찬호동문의 각 금일봉 협찬으로 즐거운 뒤풀이까지 곁들여졌다.

이날 부인을 모신 정창환 장중호 임상택 동문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신바람을 냈으나 홀몸인 강재모 김황영 박찬호 손부홍 신희규 유경수 이승남 정준수 조영일 한해수 황춘식동문은 서로 애처롭다(?)며 위로했다.

체육대회·여름캠프 열어 화합과시

제31회 서부회 사업확정

제31회동기회 서부지역회는 2월 16일 부산 사하구 괴정동 '해물뚝배기집'에서 정례회를 열었다.

박경수회장 주재의 회의는 △정정남동문 총무 임명 △오는 11월 4일 체육대회 경비 규모

(본부동기회 100만원·각 지역구 150만원·서부회 동문 각 10만원·기타) △체육대회 종목(풋베이스볼 배구 족구 부부릴레이 등 6종) △여름캠프 7월 13~14일(장소 배내골 등 택일) 일정 등 안전을 의결했다(19명 참석).



△제14회동기회 송년회. 우먼파워의 동등한 기세에 짓눌려 있던 동문들이 무대에 올라와 노래와 장기로 기쁨 싣고 있다.

'우먼파워' 축제압도 "말리지 마"

제14회 송년회 98명 중 부인 절반 차지

제14회동기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6시30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호텔 '사파이룸'에서 부부동반 98명(부인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잔치를 벌였다.

노수덕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김건호총무의 재치 넘치는 사회 속에 노래와 장기자랑으로 윗어져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등산회 의약회 낙석회 등 각 클럽에서도 임원을 개선했다. 조직강화에 전걸음질을 하고 있다.

△낙석회장 박병선=바독동호인 모임인 낙석회는 지난 1월 14일 '별장집'(수영구 민락동·김용길 동문 운영·13회)서 개최, 신임회장 박병선동문(신희모직 대표) 선임, 부부동반 28명 참석.

△등산회장 최충락=등산회는 지난해 12월 17일 금정산서 2000년 남파등산을 한 후 '참나무숯불구이집'에서 총회개최, 신임회장 최충락(한영골드체인 상무)·총무 조대무동문(고려인삼총판 대표) 선임, 부부동반 25명 참석.

△의약회장 황원규=의사와 약사모임인 의약회 정기총회가 지

난해 10월 17일 일력초밥(중구 중앙동)에서 개최, 신임회장 황원규(황원규소아과의원장)·총무 염상주동문(염약국 대표) 선임.

'龍建會報' 15호 발간



부산지역 건설업 관련 동문들의 친목회인 용건회(龍建會·회장 장상진·16회)는 소식지 '용건회보' 제 15호(사진)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회보에는 장상진회장 및 박봉흠 직전회장(11회·한화종합건설 대표) 인사말·조대제 본부동창회장(7회·협성개발 대표) 격려사·김형오 국회의원(20회) 축사를 비롯해 집행부 임원·기별이사·직능별 회원 주소록, 제8차 정기총회·이사회 소식 등이 실렸다. 또 '건설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존전략'(강종원·16회·지원건설경영컨설팅 대표) 제하의 회원 논단도 소개됐다.

제23회동기회 임원 명단

본부동창회 부회장
박기욱
서영수
본부동창회 이사
김성주
김종규
박수갑
백창영
하영곤

회장
박수갑
부회장
김동욱
김영기
홍덕표
원인건
정상건
김태용
하영곤
하종기

박철병
이영흔
상임이사
김 훈
김영철
서영수
감인홍
장병규
이인근
옥치범
박기욱

최인표
유동현
오운안
김경섭
박재호
김성주
김종규
백창영
이 사
김상현
김익곤

노영배
방경부
신상희
김호경
박문희
박철수
전용극
안병화
윤일환
정순구
이수백
조현표

조재진
홍성철
서승환
이윤석
유진무
최성대
최광재
김상영
최 승
채행운
박재완
전영조

김민수
윤순현
감 사
이병찬
총 무
이용원
하길용



# 일본열도 올린 이수현씨는 용마가족이었다

## 부산의 이성대 동문 (12회) 만아들 철로에 떨어진 日人 구하기 위해 殺身成仁



△일본 아카몬카이 교정에서 거행된 이수현씨 영결식. 원내는 이씨의 아버지 이성대동문.

일본 도쿄 신주쿠의 신오쿠보 전철역에서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출하려다 전차에 부딪혀 살신성인(殺身成仁)한 이수현씨(26·고려대 무역학과 4년 휴학)가 '용마가족'으로 밝혀져 국내외 동문·가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그는 부산의 이성대동문(12회·이현길회계사무소 소장·사진 원대)의 만아들.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가슴에 묻은 이동문은 "수현이의 희생이 한·일 사회의 믿음을 견고히 한 것"이라며 "양국의 젊은이들은 이를 계기로 '우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게 된 줄 안다"고 말했다.

### '자랑스런 한국인' 추앙

지난 1월 26일 이씨의 참변 소식이 신문과 방송 등으로 전해지자 일본열도는 물론 한국과 전세계가 애도 속에 몰렸다.

이 같은 충격파는 이기적인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경종을 울려 '눈물의 반성'을 불러 일으켰고

일본사회에는 '의인(義人)'으로 추모케 하는 전기를 심었다. 특히 모리(森) 총리는 직접 영결식에 참석, "이수현씨의 죽음이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다.

고인은 생전에 대학을 마치면 견문을 넓히고 한·일 중개무역을 하겠다는 포부를 키웠다. 이를 위해 그는 대학 4년이던 지난 99년 가을 휴학했고 지난해 1월 일

본으로 건너가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전문학교인 '아카몬카이'에 입학, 연수 중에 있었다.

그는 당일 밤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인터넷 카페에서 퇴근, 기숙사로 돌아가기 위해 전철을 기다리고 있던 중 이 같이 참변을 당했다.

한편 한·일 두 나라에서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JR(일본철도) 동일본회사는 사고현장인 신오쿠보역 구내에 '용기의 현창비(顯彰碑)'를 건립키로 했다.

또 일본 도쿄에서 컴퓨터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제이엠아이(JMI)' 대표 추광호씨(46)도 부산 용두산공원과 일본 신오쿠보역 등 3곳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명명될 대형조형물을 세울 뜻을 밝혔다.

특히 부산시에서도 이씨가 남을 위해 자신을 초개와 같이 희생해 젊은이들의 귀감이 된 것을 추모하기 위해 어린이대공원 등 한 곳을 택해 기념비를 세울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JR 등서 기념비 건립

특히 이씨의 추모모듬기는 스포츠계에도 확산되고 있다.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는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두차례 연습경기 중 지난 3월 11일 열린 1차전을 '이수현씨 추모경기'로 치러 고인의 높은 희생정신을 기렸다.

동구 범일동 국제호텔 '천마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을 개설했다. '2001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서정대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

는 부부동반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했고 임원개선을 통해 박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송년잔치를 벌인 동문·가족들은 노래와 장기자랑으로 우정을 쌓았고 격의없이 친교를 다졌다.

## "즐겁고 많이 모이는 동기회로"

### 제12회 부산 서울 총회... 남기용·윤학근 회장선임



△지난 2월 13일 저녁 부산 코모도호텔서 열린 제12회 정기총회.

제12회동기회는 부산·서울회장으로 각각 남기용동문(문교산업 대표·사진 왼쪽)과 윤학근동문(금산 회장·사진 오른쪽)을 선출했다.

부산에서는 지난 2월 13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 '오류도홀'에서 동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 고문단회의에서 추대된 남기용 수석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용연회장 주재의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했고 임원개선에서는 김철기동문이 임시의장을 맡아 의사를 진행했다.

이번 모임에는 서울의 김영길부회장을 비롯해 울산 거제 진주 마산 대구 안동 대전 등지의 동문들이 다수 참석했고, 전남 구례에서 박정윤동문이 축전을 보내와 기쁨이 넘쳤다.

△회장=남기용  
△수석부회장=장동석  
△부회장=권 의 김준철 박중정 엄태섭 이창대(총무 겸임)

△감사=천구성.  
서울에서는 지난 1월 15일 서울 서초구 역삼동 '삼사록'(서영대 동문 운영)에서 2001년 정기총회를 개최, 윤학근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규만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및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설했다.

△회장 = 윤학근  
△수석부회장 = 권봉헌  
△부회장 = 김영길(총무 겸임)  
김영록 김진호 변재용 차민도  
△감사 = 임성삼.

### 박흥규 회장 선임 제24회 정기총회

제24회동기회를 이끌어 나갈 신임회장에 박흥규 동문(박소아과 원장·사진)이 선임됐다.

제24회는 지난해 12월 8일 부산

## 동·문·이·퍼·낸·새·책

### 교육, 그 무엇이 나를 설레이게 하는가?

박종술(11회) 지음

박종술동문(11회·전 부산서부교육청 교육장)은 42개 성상의 사도(師道)를 마감하면서 교육수상집 '교육, 그 무엇이 나를 설레이게 하는가'(새부산문화사)를 출간했다.

박동문은 지난 59년 4월 옥중중 교사로 교단을 밝은 이래 최

근 부산서부교육청 교육장을 끝으로 정년퇴임했다.

이번에 펴낸 교육수상집 '교육, 무엇이...'는 42년에 걸친 사도를 회고한 것으로, 모두 9장으로 정리되어 있다.

박동문은 육사와 서울대 공대에 합격했으나 가정형편으로 이를 포기, 부산대 사범대 수학과에 입학했다. 이때 최고득점자



로 뽑혔다. '교감' 특목특강 '영어교육 강화' '학교 화장실의 문화공간' '부산에 전국 첫 골프교실 설립' '어머니 중학교 운영' '전체 학교에 육상부 설치' 등은 박동문의 손꼽히는 교육실천사례다.

### D·H 로렌스문학 연구 고대적·동양적 접근

조일제(26회) 지음

조일제동문(26회·부산대 교수·영어교육과)은 자신의 로렌스문학에 관한 세 번째 연구서인 'D.H 로렌스 문학 연구의 고대적·동양적 접근'(우용출판사)을 최근 펴냈다.

조동문의 이번 저서는 로렌스

문학에서 '고대'와 '동양'은 물질 과학 지성 중심의 서구문명에 대한 대안(1장), 로렌스 문학 전체를 지배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주의적·범신론적 감수성(2장), 선불교 불교 힌두교에 접목시킬 수 있는 동양사상(3장) 등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특히 서구 문명 구제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되는 고대적 동양적 원시적 감수성의 근간이 되는 창조적인 녹색감수성이 어떻게 로렌스의 작품에 현시되고 있는지를 조명(4장)하고 있다.

### 부동산 <돈이 보이는> 세(稅)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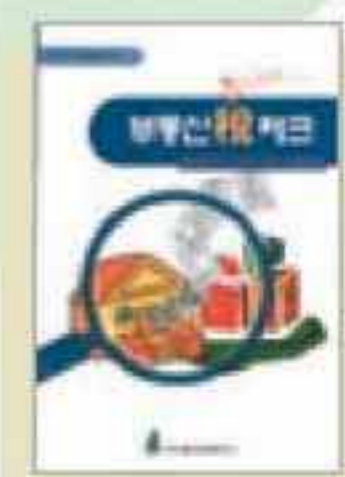
이병훈(32회) 지음

이병훈동문(32회·공인회계사)은 부동산관련 세금을 토피별로 가이드한 '부동산 <돈이 보이는> 세(稅)테크'를 출간했다(한국재정경제연구소).

이 책은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법·법인세법 △특별부가세법 △지방세

△기타 세금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등 부동산 소유 사업자의 '세금대처'를 가이드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로 '이병훈세무회계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문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이 대학 대학원을 나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을 취득, 삼일회계법인·대한항공에서 근무했고 동아대 동서대에 출강했다. 동기회 테니스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문은 현재 세무회계자문과 컨설팅 및 관리업무, 북부산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으

로 활약하고 있다. 삼성물산 부장인 이상훈동문(27회)과 번역사무소 대표인 이동훈동문(29회)이 친형이다.



# 백암산서 21C 첫 시산제 | 본부 용마산악회 103명 참석

본부동창회의 용마산악회 제5차 정기산행대회(올해 첫 행사)가 지난 2월 25일 경북 울진 근교 백암산(1004m)에서 한동대산악회장을 비롯한 동문 88명과 가족 15명

등 모두 10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백설로 뒤덮인 백암산은 "용마만세!"와 "후라 경고!"의 뜨거운 함성으로 달아올랐다.

일행은 이날 오전 11시50분 백암온천 산행 들머리를 출발, 50분 동안 땀을 흘린 후 흰바위 갈림길에 올라 점심을 먹었다.

오후 1시10분 이 곳을 일제히 떠난 일행은 한화콘도 갈림길을 거쳐 오후 3시30분 무릎까지 빠지는 눈으로 쌓인 백암산 정상에 정복했다.

하산은 당초 정상에서 흰바위쪽으로 계획했으나 쌓인 눈 때문에 이를 변경, 한화콘도 갈림길~흰바위 갈림길~백암온천 코스를 택해 산행 6시간20분 만인 오후 5시30분 대미를 장식했다.

일행은 온천욕과 단합회를 치른 후 밤 11시30분 부산으로 돌아왔다.



## 재경경팔회 노익장과시 산우회 태백산에 잔디회 새해 첫 샷

재경경팔회(제8회재경동기회·회장 전영배)의 산우회와 잔디회가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새해에도 의욕넘치는 활동을 전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경팔산우회(회장 김영철)는 지난 2월 5일 태백산을 올랐고, 앞서 1월 27일에는 김회장 등 13명의 산꾼이 전날 내린 서설을 밟으며 산행을 즐겼다.

특히 이날 산행에는 미국서 최근 돌아온 문창화동문과 무릎 불편이 호전된 김호석동문이 참여해 분위기를 더한층 밝게 했다.

한편 골프모임인 잔디회(회장 이창근)는 지난 3월 8일 오전 안성CC에서 올해 첫 라운드인 제97회 월례회를 열었다. 5팀이 기량을 겨뤘다.

## 제15회 사하회 신년회

제15회동기회 사하회는 지난 1월 30일 오후 7시 부산 사하구 괴정동 '동백봉계숯갈비집'에서 신년회를 열었다.

김창구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16명이 참석했다.

손부홍동문의 특찬금(10만원)과 장운석동문의 양주 1병 협찬이 겨울밤을 훈훈하게 하는 데 일조를 했다.

## 박수웅(16회) 삼성정밀화학 대표이사 사장 박현국(25회)·고봉인(27회) 상무이사·상무이사보 승진



박수웅 동문(16회·사진)은 삼성정밀화학 대표이사 부사장 재임 중 이 회사 사

장으로 영진했다. 부산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박동문은 제일제당(주) 상무이사·삼성물산 전무이사·삼성코닝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박동문은 지난해 에너지절약 유공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 우승 유병용·강창수 제12회 2000동계바둑대회

제12회동기회·산하 용마기우회 공동주관 회장배 2000년 동계바둑대회가 지난해 12월 23일 부산 중구 부평동 용두기원(정진태동문 운영)에서 개최됐다.

이용연동기회장과 김철기기우회

장이 같이 주재한 이날 대회에는 기사와 응원 동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A·B조 토너먼트로 진행된 대국에서 △A조는 우승 유병용·준우승 이원우·감투상 김영선 △B조는 우승 강창수·준우승 박삼덕·감투상 장상근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 “금산사 벚꽃 축제에 오세요”

일육회 정기총회기념 4월 14~15일 관광산행

제16회동기회 일육산악회(회장 김인국)는 정기총회 겸 4월산행을 오는 4월 14~15일 이틀간 예정으로 전북 내장산 백양사~고창 선운산(444m)~선운사 동백꽃-김제 모악산(774m)~금산사 벚꽃~진안 마이산 코스에서 열기로 했다. 산악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3월5일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앞 영일횃집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기총회 행사비로 ▷김인국 회장 30만원 ▷김길정 부회장 20만원▷강종국 김찬문 서태복 이경일 최정일 동문 각 10만원을 협찬했다.

## 동문 장례식 도와 받은 사례금 30만원 기별야구후원금으로

### 제38회동기회, 본부기탁

제38회동기회(회장 박정민)는 갑자기 유명을 달리한 동기생의 장례식을 도와줘 고맙다는 뜻으로 유족대표가 내놓은 사례금을 기별야구발전 후원금으로 기탁해 화제다.

동기회 동문들은 지난 1월 25

일 구자운동문이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비보를 듣고 떠나 할 것 없이 상가에 모여 조의를 표하고 역할을 맡아 장례를 도왔다.

미망인을 포함한 유족대표는 이 같은 고마움을 잊을 수 없으며 사례금 30만원을 내놓았다.

동문들은 이를 끝까지 사양했으나 막을 수 없게 되자 이 사례금을 기별야구발전 후원금으로 기탁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회장단은 이에 따라 최근 본부동창회 사무국을 방문, 이 사례금을 기탁했다.

또 박현국동문(25회)과 고봉인 동문(27회)은 각각 이 회사의 상무이사과 상무이사보로 승진했다.

## “살아 있었군, 반갑다!”

### 명단 빠진 두 동문 재회 제27회 서·사하회 모임

제27회동기회 서·사하회 3차 모임이 지난 2월 16일 오후 7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미횃집'에서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모임은 지역회 창립 이래 최대의 참석률을 보였다. 양태중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

에는 그간 동기회명부에 누락됐고 소식이 없었던 임태주(이영환 법무사 사무소) 김말규동문(하단 삼성약국 약사)과 강봉호 해운대 지역회장 등이 참석, 분위기가 한결 뜨거웠다.

## 본부 행사 적극참여 결집력 과시키로

### 제34회 정기총회 개최

제34회동기회는 2월 23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해인식당(구봉수동문 운영)'에서 200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올해 대학 595명 합격 '부산최고' 서울권 115명으로 首位영광 차지

### 모교소식

모교 경남고(교장 김성찬·12회)의 2001학년도 대학합격은 모두 595명으로 분석, '부산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권 경우 서울대 10명을 비롯해 115명이 합격, 이 역시 '수위영광'을 누렸다.

모교에 따르면 서울 경우 서울대 10명(재수생 포함)·연세대 6명·고려대 17명을 포함 14개 대학에 79명과 수도권서 36명이 진학했다.

부산권은 부산대 40명·동아대 68명·부경대 43명·경성대 35명을 포함 10개 대학에 388명이, 경상권 78명, 충청권 8명, 전라권 1명, 제주권 5명으로 나타났다.

## 경남중 야구·농구·육상 소년체전 부산대표 경남고, 대통령 전국대회 1차예선 우승

경남중(교장 주기민·16회) 야구 농구 육상부가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부산대표로 선발됐고, 경남고(교장 김성찬·12회) 야구팀도 대통령배 1차 예선전서 우승을 차지해 겹경사를 누렸다.

경남중 야구팀(감독 노재완·38회)은 지난 3월 12일 구덕야구장에서 열린 2001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전에서 대동중을 12-6으로 물리쳐 3승, 부산대표로 선발됐다.

또 농구팀(감독 김중렬)은 17일 같은 장소에서 대동중을 46-44로 격파했고, 육상팀(감독 이상

부)경우 정민욱군(3년)이 높이뛰기에서 190cm를 뛰올라 대회신기록(185cm)을 수립했다.

육상팀은 정군에 이어 윤채성군(3년)이 800m와 1500m에서 2위, 이상승군(2년)이 3000m에서 2위, 임찬호군(2년)이 800m에서 3위를 마크했다.

그리고 경남고 야구팀(감독 정연희·17회)은 지난 3월 16일 구덕야구장에서 폐막된 2001년 춘계리그 겸 대통령배 대표 선발제1차예선전 마지막날 경기에서 부산고와 5-5로 비겨 종합 3승1무를 거둬 부산고와 공동우승을 차지, 저력을 과시했다.



## 양세동군 등 5명 용마장학금 받아

### 경남고 55회 졸업식

모교 경남고 제55회 졸업식(사진 위)이 지난 2월 14일 오전 11시 학교 체육관에서 김성찬교장(12회) 주재로 열려 537명의 새로운 용마를 배출했다. 이로써 모교 졸업생은 모두 2만7205명으로 늘었다.

이날 조대제 본부동창회장(용마 장학회 이사장 겸임)은 격려사에 이어 양세동 명종호 안재문 유용석 이문원군 등 5명에게 장학금을, 유용석군에게 동창회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또 최성원군은 이상택장학금(13회·안양병원장), 강경동군은 최성호장학금(17회·최성호피부비뇨기과의원장), 윤철웅군은 연당장학금, 김경수군은 부산대 치과대 덕형회장학금을 받았다.

### 경남중 58회 졸업식

모교 경남중 제58회 졸업식이 지난 2월15일 오전 10시 학교 체육관에서 주기민 교장(16회) 주재로 열려 388명을 배출했다.

조대제 본부동창회장은 격려사에 이어 학업성적이 우수한 이형주군에게 동창회장상을 수여했다.

황병주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명이 참석, 결산보고 및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본부동창회 정기총회를 비롯, 본부주최 테니스 골프 산행 낚시대회와 용마의 밤 행사 등에 적극 참여, 동기회의 결집력을 과시하기로 결의했다.

해운대회 월례회 한편 해운대 지역회는 지난 2월 9일 오후 8시 해운대신시가지 영풍프라자 3층 '가마고을'에서 월례회를 개최했다.

## 삼삼산우회 활성화 제33회 김법영회장 유임

제33회동기회는 지난 3월 9일 오후 7시 부산진구 부전동 대림

뷔페에서 2001년 정기총회를 열고 김법영회장(동의의료원 신경외과과장·사진)을 유임시켰다.

김회장 주재의 총회는 결산보고 승인에 이어 임원을 개설했다. 특히 김회장은 동기회 등산모임인 '삼삼산우회'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회장=김법영 △수석부회장=송종현 △부회장=배종현 이광호 이순환 △감사=박영배 신영재 △총무=김재선.



제 1 회

權五賢=(자택이사)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현대아파트 107동 1103호. 051-264-6866

제 8 회

姜聖道=5월 6일 미국 LA에서 장녀 은혜양 결혼
金程坤=2월 14일 부경대학교 정년 퇴임
金在汎=(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585 반여 우신아파트 104동 1807호. 051-522-8487
成亥源=3월 24일 12시 서울 방배성당에서 아들 명진군 결혼
朴宰範=대성엘텍 대표. 지난해 11월 30일 무역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김태규=1월 14일 모친 별세
洪起城=1월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부친 별세

제 10 회

金宣東=부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 취임. 부산시 동래구 명륜1동 681-31. 051-558-0012
許 燮=2월 25일 오후 1시 목화예식장에서 장녀 소영양 결혼
姜正熙=부산시 동래구 명장1동 삼성타운아파트 102동 1805호. 051-525-3330
金榮吉=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148-38 심진강 민물찻집. 051-555-2805
金炫喆=해운대여자고등학교 교장. 051-741-6432.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산 100-4 (38/5). 051-747-3881
文昌海=성원화학 대표. 051-323-4369.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215동 1109호. 051-623-9700
趙判濟=1월 20일 지병으로 별세
李允洙=1월 27일 미국 LA에서 딸 결혼. (자택)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9동 402호. 02-545-2554
金相泰=(상호변경)비엔택코리아(주). 02-806-7909
陳 剛=(주소변경)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92-16 센하인 401호
金萬郁=(자택이사)2817. EAST VALLEY BLVD APT 8.B WEST COVINA CA 91792 U.S.A. (전화)001-1-626-965-1692

어디서 무엇을

제 12 회

姜滄信=(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명장SK아파트 111동 204호. 051-522-0631
權廷相=사법고시에 장남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연수중
權洪壽=2월 9일 고향 영덕에서 부친 별세
南基鎔=1월 1일 부친 별세
金石柱=지난해 12월 9일 차남 결혼
金鐘源=대구·경북지역동기회장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송년회 때 수고가 많았다
金喆基=지난해 12월 23일 바둑대회 때 기우회장으로 수고가 많았다
朴龍雲=지난해 12월 24일 모친 별세
朴正潤=전남 구례에서 동기회 사무실 방문
朴貞一=1월 7일 장녀 결혼
柳英哲=2월 17일 장남 결혼
鄭泰化=1월 7일 장남 결혼

제 13 회

張米秋=3월 1일 서울 상록수 웨딩홀에서 딸 수지양 결혼
文昌=3월 4일 해운대 글로리콘도호텔웨딩홀에서 장녀 현주양 결혼
梁哲朝=141-PARIS LOAD NEWHARPROAD N.Y 13413 U.S.A. TEL:0011-315-793-3241-2. 고국이 그리워 타향에서 쓸쓸한 친구에게 편지나 전화연락을 자주합니다
金映文=1월 14일 아리랑관광호텔에서 장남 결혼

제 14 회

姜周信=동기회 낙석회 회장. 지난해 11월 25일 모친 별세. 051-624-5047. 011-552-5123
朴清弘=동기회 총무. 051-462-6114. 지난해 12월 3일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장남 결혼. (자택)051-894-6226
林宜秀=명강사 대표. 051-632-0303. 1월 3일 모친 별세. (자택)051-754-2145

盧守德=동기회 회장. 금양(주) 회장. 051-322-5881~3. (자택이사)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349 내림파크빌 101동 1001호. 051-806-0579
具滋信=(주)성광전자 대표이사. 055-380-0700. 1월 3일 양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임. (자택)051-582-0399
金 寬=(주)재원기업.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666. 055-253-2436. (자택)055-251-8927
金東和=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055-249-2358. (자택이사)경남 마산시 중앙동 2가 우방아파트 105동 905호. 055-223-3880
千金成=22년간 중앙문단 생활을 청산하고 귀향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1가 21-15 우영빌딩 501호에 한국소설아카데미 개설 원장으로 활동. 051-257-9137. 011-874-3107
金相守=서부산경찰서 방법과장. 051-257-9808. (자택)051-255-0867
朴大勳=2월 17일 목화예식장에서 차녀 결혼. (자택)051-201-2294
崔炳允=한빛신용정보 대표이사 취임. 02-2276-0197
車漢柱=1월 13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별세
全在元=1월 9일 부친 별세
李光寅=1월 13일 딸 결혼
洪起何=2월 8일 아들 결혼
朴瀟奎=3월 11일 아들 결혼
金東一=02-360-2242. (자택이사)서울시 서대문구 연희3동 연희대우아파트 101동 1801호. 02-324-4816
權廷赫=(자택이사)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1-5 수리 한양아파트 803동 702호. 031-398-4470
愼升緯=(자택이사)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1052 대우아파트 숲속마을 105동 604호. 031-998-7918

제 15 회

金廷奎=(자택이사)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황계리 236. 051-721-0892. 016-847-2245
河永守=부산 문현동 번영로 갑

리교회에서 장남 성광군 결혼
金鍾泰=경남고등학교로 전근. 051-248-2181
李東根=괴정 범일병원 장례식장 개업. 051-293-4382~3. 018-273-8033
金貴德=(직장)051-248-3124. (자택이사)부산시 부산진구 부암3동 협성피닉스아파트 103동 907호. 051-802-8154
金長吉=(자택이사)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665-1 해바라기아파트 마동 505동. 051-553-7574
金太煥=(자택이사)경남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성방. 017-567-7187
李海龍=(이전개업)오행당약국.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109-6. 051-972-4989. 971-4321. 971-0799
徐正旭=울산지역동창회 사무국장. 울산시 중구 성남동 243-3 북경 4층. 052-244-8355. 011-884-3677
金吉弘=남부수도사업소장. 051-628-3025. 626-0228
劉敬守=1월 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 A홀에서 차녀 선희양 결혼
朴在浚=1월 7일 목화예식장 5층 금실에서 장녀 현주양 결혼
金準君=1월 13일 목화예식장에서 장녀 수향양 결혼
姜昌一=(병원개원)강창일·강기상내과의원. 부산 인제대학 부산백병원 앞. 051-859-0773
李憲雨=(자택이사)울산시 남구 목동 129-6 동덕 현대아파트 102동 1204호. 052-269-3304
韓海洙=고려당 광복동점 신장개업. 부산시 중구 광복동 2가 41. 051-245-7727

제 17 회

金重成=기아자동차(주) 부산장점 국내영업본부장. 02-3464-5030
閔泰丁=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원장으로 승진. 031-210-2600
鄭斗鎬=LG실트론(주) 대표이사
明正守=유한대학 학장
鄭淳台=월간 조선 편집위원. 02-724-6811
崔修一=마론인터내셔널(주) 부

회장. 02-515-8062. (자택이사)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21동 402호
朴文晨=SKM 사장에 취임
孫富一=해양수산부 어업기술인력 과장으로 전부
李宗址=(주)동신제약 사장으로 취임
李浩東=(주)이폴리머 회장으로 이동
趙隆熙=정암기업 대표
李泰峯=1월 14일 딸 결혼
尹德龍=2월 13일 아들 결혼

제 18 회

金炳學=대신여자중학교 교감. 051-248-1817
李興洙=동양오리온투자신탁증권 부산주재이사. 051-808-8301. 011-9511-7866
盧永秀=복덕방 공인중개업 개업. 051-294-2483
朴碩道=이화미술학원 원장. 051-553-1643
李相永=부산의료원 건강관리과 과장. 051-866-9031
崔寬哲=부영엔지니어링 대표이사. 051-323-8321
黃昌煥=세림방재 대표. 051-466-8829
林道根=(주)삼공사 대표이사(취임) 051-205-7101~5
金思權=(전보)경찰청 방법과장. 051-851-5200
張淵植=(주)동진콘테이너 이사. 051-266-8114
李大運=새대학약국 대표. 051-248-0803
李相敏=진해용원에 상가 건물 오픈. 051-206-9680
崔康登=(주)경공산업 대표이사. 1월 7일 모친 별세. 051-261-2911
許泰烈=국회의원 부강서울 한나라 지구당 위원장. 051-972-6836
徐富源=한솔공인중개사 대표. 051-293-9308. 파워펀치 119 소화기 사하지사장

제 20 회

金玉碩=미국거주 산부인과 의사. 지난해 12월 30일 부친 별세
金榮昌=건강보험감사평가원. 1월 25일 부친 별세. 02-705-6030
李實根=대한항공 이사. 1월 29일 모친 별세. 051-970-5450
金泰璜=현대병원 원장. 2월 18일 부친 별세. 051-552-8782

<7면에 계속>

자꾸 자꾸 듣고 싶은 당신의 이야기

회보편집위원회에서는 동문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학창시절 추억이나 잠시 잊고 지낸 여러분의 꿈...
지금 일상의 이야기까지 어떤 소재도 가능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4~5장 이내 (명함판 사진 1장 동봉)

<보내실 곳>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오피스텔 411호(600-074)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전화 : 051)245-7551~3 팩스 : 051)245-7550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www.kyungnam.or.kr

모교와 동창회의 소식이 가득한 동창회 홈페이지를 지금 클릭하세요.

\* 홈페이지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 어디서 무엇을

## <6면에서 계속>

鄭洋禹=협성운수. 1월 7일 새부 산예식장에서 딸 결혼. 051-203-2885  
 金龍哲=대륙중공업 대표. 2월 3일 아들 성식군 결혼. 051-416-2356  
 李基福=2월 1일부로 월드컵축구 대회 부산운영본부 사무국장으로 파견 근무. 051-506-8031

### 제 22 회

金東鎭=재경동창회 이사 피선. 태림산업 대표. 031-223-6213.  
 趙允載=재경동창회 이사. 수륙산업 회장. 02-508-4510.  
 裴昊元=삼성생명 부사장 승진. 02-751-8038  
 李在浩=서울동기회 총무 내정 예정. 수정부동산 대표. 02-795-0440  
 許範道=중소기업청 경기청장. 031-290-6920  
 崔胎植=유원건설 부사장 발령. 02-319-2237  
 金炳潤=두산건설 상무이사. 02-510-3092  
 金舞述=안양정형외과의원 원장. 031-446-0812

### 제 23 회

金東沃=인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자택)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삼익아파트 2동 503호. 051-256-2513  
 崔寅表=경동보일러대리점 대표.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571-1. 051-206-4343  
 李德男=(주)동부고속 부산지점 지점장. (자택)부산시 남구 대연3동 삼익그린아파트 102동 2104호. 051-611-1132  
 崔升=동기견인운수 대표. (자택)부산시 사상구 주례1동 주례현대아파트 102동 206호. 051-322-4559  
 金海龍=(자택)부산시 사하구 신평1동 한성기린아파트 2동 1009호. 051-291-2806  
 韓英哲=(개업)좋은예감.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13-22. 051-201-4767. (자택)부산시 사하구 신평2동 425 한신아파트 204동 1901호. 051-204-6920  
 李成基=서경종합건설 대표이사. 051-263-0311  
 全榮讚=서경개발. (자택)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럭키남산아파트 101동 704호. 051-512-6252

張大翼=강서구청 민원감사실장. 051-970-4310  
 全映朝=남일회계법인 대표회계사. 051-469-6755  
 이덕남=동부건설 부산지점장  
 韓進洙=동아일보 영남본부장. 051-468-6014~5  
 朴春根=(주)대우건설 황령산사업소 소장. 051-627-5817

### 제 24 회

金道鉉=울산 남구 옥동에 현대부동산건설팀 개업. 052-266-8001  
 金天德=(주)효성 모스크바 지사장. 7-095-956-5172  
 孫聖鎭=동아대학교 재무처장 발령. 051-200-6240  
 張原聖=부산교육청 과학기술과 진흥담당사무관. 051-8600-288  
 田文植=서면 대한지하상가내 인디안모드 개업. 051-802-1405  
 具明珍=(주)U.K 대표이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 개설. 02-2009-2001~3  
 金炳琇=재경동기회장에 선출. 오파람산업 대표. 02-2263-8560  
 金性彦=동아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자택이사)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선경아파트. 051-200-7162  
 金英詰=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연구차 도미  
 金海龍=전주 한일장신대 교수. (자택이사)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한성기린아파트. 051-291-2806  
 朴俊哲=평창산업 상무.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199-4. 051-327-7191  
 尹址鉉=울산케이بل 방송 국장. (자택이사)울산시 북산동 남문럭키아파트. 052-945-2100  
 全承均=대양정보고등학교 교사. (자택이사)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우성아파트. 051-640-0540  
 金孝根=교육사령부 교리차장. 1월 1일부로 장성(준장) 진급  
 姜昌德=제일화재해상보험(주) 부산영업소 부장. 051-464-0090  
 林炳用=부산대 일반대학원 부원장. 3월 14일 부친 별세. 051-240-7726  
 李明馥=대한주택공사 의정부 송

### 산 사업단장

### 제 25 회

金鍾滿=현대자동차 동래지점장. 051-505-8201  
 金鍾賢=SKT상사 대표. (사무실 이전)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378-10 선영빌딩 2층  
 韓榮根=기업은행 부산지점장. 051-245-6986  
 金殷浩=(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1378-85  
 盧台鎭=서울명문약국 대표. (약국 이전)부산시 서구 토성동4가 28-6. 051-242-5616  
 曹晃道=동기회장. 외환은행 신평동지점장. 051-206-3100  
 禹相朝=명낙우동 대표.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5-21. 051-624-3257  
 李龍雨=부산구화학교 교장. 지난 해 12월 19일 부친 별세  
 文光燮=서울보증보험 남대문지점장. 2월 4일 부친 별세  
 李世鎭=1월 3일 별세  
 崔鍾德=1월 11일 부친 별세  
 金在鴻=1월 13일 모친 별세  
 許哲九=1월 20일 모친 별세  
 吳楊得=1월 31일 모친 별세

### 제 26 회

金斗泉=동성식품제분 (사무실 이전)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26-9. 051-311-5930  
 金壽福=경성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051-620-4590. 1월 15일 부친 별세  
 鄭國根=덕인약국.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149-9. 051-747-8589  
 李鍾仁=이종인신경과. 부산시 중구 대청동 3가 9. 051-466-8392  
 權鐘大=권종대치과의원.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4동 660-1 한신 O/T. 051-811-1205~6  
 李漢哲=태광한의원.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409-11. 051-581-4201  
 蔣景在=대동병원 방사선과. 부산시 동래구 명륜1동 530-1. 051-554-1233  
 李炳玉=한겨레치과의원.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126 해동빌딩 5층. 051-853-2511  
 李壬燮=동의공전 건축과 교수.

### 051-860-3106

李相遠=부산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051-510-2704  
 朴鏞碩=박용석변호사. 부산시 서구 부민동1가 2-6 대광O/T 803호. 051-243-4321  
 金太勇=다사랑커뮤니케이션(주).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611-47 복산B/D 5층. 051-208-7161  
 朴福洙=대명공인중개사. (사무실 이전)부산시 해운대 신시가지를공3단지 락희상가 1층 110호. 051-703-6866, 703-6684

### 제 27 회

姜鳳鎭=삼성화재 사하사업소 미래대리점 대표. 051-208-0984  
 權明保=(근무지이동)국제신문사 편집국 부국장. 051-500-5084  
 金敬鐘=(근무지이동)부산고등법원 민사3부 부장판사. 051-240-1014  
 金修仁=(근무지이동)스포츠조선 홍보심의부 부장. 02-3219-8072  
 朴勝俊=조선일보사 외신부 부장. 02-724-5323. 2월11일 모친 별세  
 梁太種=동아대학교 서양어문학부 교수. 독문학 박사. 051-200-7097. 독일문학. 문화 연구차 6개월 예정으로 2월 26일 독일로 출국  
 李基雨=(근무지이동)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부이사관) 국방대학원 교육과전. (전화번호변경)016-203-1955  
 李敏福=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 043-230-3630. (자택이사)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코오롱아파트 104동 606호. 02-421-3242  
 李相祖=PEJA KOREA 대표. 02-3444-6501. (자택이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나빌라 A동 106호. 031-701-7847  
 李宰龍=교보증권 분당지점 지점장. 031-717-9210. 2월 2일 부친 별세  
 林泰澍=이영환법무사무소. 051-247-9500. (자택)부산시 남구 우암1동 10-28 (3/1). 051-632-9242  
 田豊=(주)두산 주류비즈니스 그룹 부사장. 02-3398-1604. 두산에서 山소주(녹차소주) 신개발

을 주도 부산 소주애호동기들에게 시음용으로 7박스 보내줌(김현수동문 사무실에 보관중)  
 全泰元=(근무지이동)세기문화사(국가정보원) 서울지역 근무. 02-2226-3891. 1월6일 부친 별세  
 鄭相坤=(근무지이동)국세청 감사담당관. 02-397-1301  
 鄭元在=(근무지이동)하나은행 울산지점 지점장. 052-260-2211  
 趙敏濟=(근무지이동)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서면지점 지점장. 051-808-9707  
 車東珉=(근무지이동)LG캐피탈 인사총무담당 상무. 02-2005-8007  
 崔正一=(근무지이동)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02-724-1478

### 제 28 회

趙廣濟=동기회장. (약국개업)부천약국.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267-18. 051-804-3818

### 제 33 회

朴容得=베비라할인매장 대표. (자택)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쌍용아파트 102동 1502호. 051-583-2806. 019-504-2800  
 劉鮮龍=(자택)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산14-6 송림맨션 117호. 051-517-7478. 011-709-3008  
 이재갑=동일화학(주) 본부장. (자택)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만세한신아파트 101동 807호. 051-517-4268. 011-854-8682  
 林石彬=한국엘타 대표. (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삼성아파트 104동 1404호. 051-702-5658. 018-558-9613  
 崔政憲=LG전자 차장.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LG강남타워 14층. 02-2005-3330. 019-572-0008

### 제 35 회

尹明寬=1월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노회에서 목사 임직 받음. 016-620-4895

### 제 36 회

姜顯詰=노동부 안정정책과로 발령  
 南禹鎭=국세청 본청 징세과로 전보  
 崔壯赫=감사원(3년 예정 미국 유학).

## 제33회동기회 임원 명단

회 장  
김법영

고 문  
김정욱  
김진용  
박명진  
옥종훈  
윤성국  
최정현

수석부회장  
송증현

부회장  
배종현  
이광호  
이순환

감 사  
박영배  
신영재

이 사  
고창성  
권봉수  
김 일  
김동환  
김시홍  
김종만  
김종택(창원지역회장)  
김진일  
김태균  
김호생

남경태  
마승훈  
민병현  
박중철(김해지역회장)  
박태우  
박태종  
서길원  
손영대  
윤상현  
이기석  
이영호

이윤조(삼솔회장)  
이호인  
장성욱(울산지역회장)  
장정석  
정세영  
정재휘  
주기훈  
진태호  
천탁기(거제지역회장)  
최성현  
최웅남

홍주성  
황규태

총 무  
김재선



# 중국대륙에도 “후라 경고!” 함성 동창회 공식 출범

중국대륙에도 “후라 경고!”의 함성과 함께 용마기상이 용솨음치고 있다. ‘작은 결속’이 ‘대약진’을 예고했다.

중국에 진출한 동문 중 북경 남경 상해 중심의 10여명은 작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야유회 골프대회 친목행사 등을 갖고 화합을 펼치다가 최근 북경에서 ‘경남중고 중국지역동창회’ 결성 및 현판식을 올렸다. 이들은 집행부를 구성, 박해득동문(24회)을 초대회장으로 뽑았다.

## 북경 남경 상해 중심 10여명 결속 각종 행사 초대회장 박해득(24회)

박 초대회장은 “이곳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동문들 중 연락이 닿지 않은 동문들은 하루 빨리 소식(연락처: Mobile Phone-86-135-016-4551)을 알려주거나 본부 홈페이지 게시

판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중국지역회 동문은 다음과 같다. △장철준(22회·어학연수) △홍성표(23회·삼성전자) △박해득(24회·LG전자 지주사 IT영업) △진익철(25회·서울무역관장) △박석환(28회·주상해 총영사관) △배승한(30회·삼성전자) △백현철(32회·아시아나항공 북경지점장) △배한석(37회·KT북경사무소장) △김영수(상해 해운회사 사장) △진명환(남경에서 개인사업).

## 법복 벗자마자 山寺에 묻혀 “전관예우 뭉길래” 신선한 충격

“20년 가까이 외로운 법관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준 것은 늘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은 선후배 동문들의 정이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지법 부장판사(4형사부)를 끝으로 명예퇴직을 한 김진영동문(22회·사진)의 소감이다.

‘대표적인 향판(향토법관)’ ‘피고인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어드리는 재판장’으로 널리 알려진 김동문은 ‘법관이 법복을 벗자마자 변호사길로 들어서 전관예우의 혜택을 받는다’는 시정의 인식에 췌기를 박아 화제를 모았다.



즉 그는 “평소 듣기 싫은 말 중의 하나가 ‘전관예우’라며 잘못 인식되고 있는 ‘전관예우’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수행의 길을 선택했다.”

퇴직 후 주변을 정리한 김동문은 이내 부

## 김진영(22회) 부장판사 명퇴후 1년간 수행

산 근교의 산사(山寺)를 돌면서 그동안 닦지 못했던 인격 수양과 불법(佛法) 수행에 들어갔다. 기간은 1년쯤으로 잡고 있는데, 변호사 개업은 그 이후의 문제로 정해 놓고 있다.

재야법조계에 들어가면 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는 김동문은 이를 위해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개업 1년 사이에 ‘전관예우’의 관행으로 많은 사건을 수입해 돈을 번다는 인식에 각성을 촉구한 김동문의 결단은 지역 법조계의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동문은 사시 22회 출신으로 지난 82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은 이래 울산 창원에 각각 2년간 봉직할 것을 빼고 줄곧 부산지법과 고법에서 재직할 대표적인 향토법관이었다.



김대욱(22회)작 ‘비상2000’ 부산 새 명물로

부산 중구 광복동 옛 미화당 앞에 세워진 조각가 김대욱 동문(22회)의 작품 ‘비상2000’이 광화의 용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 조형물은 패선의 기본상징인 천과 남녀를 테마로, 바닥에서부터 연결된 천이 역동적인 생명력을 상징하는 인체와 같아 함께 어우러져 한치기 하늘로 치솟아 올라간다. 김동문에 따르면 조형물의 인체는 청동을 소재로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담을 수 있고, 좌대부분인 시인형터는 화강석으로 자연미와 친근감을 살렸으며, 인체의 협한 손짓은 세계적인 항구도시 부산과 문화관광 중구의 미래상을 상징하고 있다.

## “대약진” 결의 역량과시

美 남가주 총회 - 이사장 김은종(13회) · 회장 천병규(21회)

미국 남가주지역동창회는 올해 송년회(12월 28일)가 열릴 이곳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 천병규동문(21회)을 신입회장으로 뽑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설했다. 특히 임원개선에서 동창회 최고의 결기구인 이사회의 신입 이사

장으로 북가주에서 활약하다 이곳으로 이주해온 김은종동문(13회)을 추대했다.

신임 천병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으로는 남가주지역동창회의 활성화 촉진에 힘쓰고 밖으로는 부산에 있는 본부동창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대강화의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회장은 본부동창회에 총회

개최에 관한 업무연락을 통해 “고국에 있는 용마 가족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새로 구성된 남가주지역동창회의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회장=천병규(21회) △부회장=황선호(수석) 박을규(이상 22회) 이익주(27회) △재무=방성연(34회) △총무=정영치(23회·수석) 강호석(35회) 조병철(38회) △기우회장=황정숙(14회) △골프회장=이상걸(21회) △낚시회장=지홍석(27회).

## 노숙자에게 仁術 베푸는 세 의사동문 격려

### 제20회 회장 최장하



제20회동기회는 지난 3월 8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동기회 사무실에서 2001

년 정기총회를 열고 최장하동문(최요한성형외과 의원장·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심두수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국회의원인 김형오동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했고, 임원개선을 통해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특히 총회는 부산진역 옆 노숙자쉼터인 소망관에서 무료의료봉

사 활동을 펴고 있는 강현진(강현진성형외과의원장) 조운태(위생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한기완동문(한기완치과의원장)의 노고를 뜨거운 박수로 치하했다.

### 제21회 회장 오거돈



제21회 동기회는 지난 2월 18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광복동 동기회 사무실에서 동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오거돈동문(부산시 정무부시장·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전기환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설했다.

## 울산지역동창회 임원 명단

고문	지수신(16회)	이사	오충환(17회)	이인광(32회)	사무국장	현대중공업 동창회 회장
정원준(3회)	김길우(17회)	박준복(3회)	한기대(18회)	장성욱(33회)	서정욱(15회)	허용준(21회)
김기홍(4회)	양동건(18회)	김상희(4회)	이만호(19회)	김종식(34회)		현대중공업 동창회 총무
김상식(8회)	성기혁(19회)	박태영(5회)	박재철(20회)	이복근(35회)	총무	안호중(30회)
유병철(9회)	박재철(20회)	이문호(6회)	박일송(21회)	박철중(36회)	김인열(29회·수석)	
차수명(12회)	한대운(21회)	변봉규(7회)	박홍조(22회)	이승열(37회)	김영현(32회)	현대자동차 동창회 회장
김익도(12회)	박홍조(22회)	김일환(8회)	이동성(23회)	진조석(39회)	이승렬(37회)	최철수(21회)
조준탁(13회)	이문희(23회)	심순봉(9회)	윤지현(24회)	최현(40회)	최현(40회)	현대자동차 동창회 총무
	서정득(24회)	김병식(10회)	김동령(25회)	윤영록(41회)		이인광(32회)
회장		공무갑(11회)	김석근(26회)	박주인(42회)		
김형수(14회)	감사	최병준(12회)	윤종철(27회)	김동우(43회)		
	김성규(10회·수석)	심진영(13회)	권기택(28회)	추세경(44회)		
부회장	조광수(13회)	장원주(14회)	김철수(29회)	손상운(45회)		
김익명(14회·수석)	김종석(16회)	서정욱(15회)	이진걸(30회)	강석빈(46회)		
이양춘(15회)		손용석(16회)	박춘열(31회)	강병국(47회)		

### 울산지역동창회 사무실

TEL : 052-244-8355 FAX : 052-244-8366  
입금계좌 : 울산대학교 우체국 613208-02-062667  
(서정욱 경남중고동문회 사무국장)